

정(情) 마음 이야기(Narrative) 분석

김기범¹ · 최상진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문화와 마음의 관계를 일반인 심리학(folk psychology) 입장에서 한국인들의 문화적 정서인 정(情) 마음의 추론과정을 통해 알아보려 했다. 본 연구에서는 면접을 통해 얻어진 자료 즉 면접자의 질문에 대한 응답자의 이야기(narrative)를 분석하였다. 남, 녀 대학생 14명을 대상으로 정든 대상과의 관계 속에서 정든 역사, 정이 들거나 떨어지게 된 사건이나 계기, 그러한 사건이나 계기에 대한 이해와 설명 등에 대한 자료를 분석하였다. 일반적으로 친밀한 대인관계에서 정은 본인 혹은 상대방의 행위 속에 담겨있는 아껴주는 마음을 느낄 때 드는데, 본인 혹은 상대방의 마음은 일상적인 활동 속에서 어떠한 사건이나 계기를 통해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경험의 매개체는 심정을 통한 공감이었다. 따라서 정 마음은 친밀한 관계에서 어떠한 사건이나 계기를 통해 발동된 심정과 그러한 심정을 느낌으로써 경험되는데, 응답자들의 그러한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분석함으로써 알 수 있었다.

주제어 : 일반인 심리학, 정, 마음, 이야기, 마음경험

한국 문화에서 문화적인 대인 정서로서의 정(情)은 친밀하고 가까운 관계, 예를 들면 가족이나 친구간에 시간과 공간을 공유하고, 상대방에 대해 혹은 상대방으로부터 다정함과 허물없음을 느낄 때 드는 것이다. 그러나 정은 항상 잘 대해주고 아껴준다고 해서 드는 것이 아니라 간혹 싸우거나, 서로에게 실망하거나 밋게 보일 때에도 드는 것이며, 이러한 정을 '미운 정 고운 정'이라고 할 수 있다(최상진, 2000). 이러한 미운 정 고운 정 관계에서는 서로가 상대방을 아끼고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이 느껴질 때 비록 싸우거나 미워한다 하더라도 정이 들었다고 생각하게 된다.

어떠한 행위에 대한 행위자의 마음과 이를 지각하는 사람의 마음은 일반인들이 일상의 활동과 언어 속에서 그 단초를 얻을 수 있다(Kashima, McKintyre, & Clifford, 1998; Wellman, 1990). 한국 사람들은 행위자의 행위 이면에 있는 마음을 중요시하고 그러한 마음은 심정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알고 느끼게 된다(최상진, 2000). 이러한 마음의 현상을 그 접근 방법과 이론적 구성 개념으로 추상화시켜 연구하는 분야가 일반인 심리학(folk psychology)이고 또한 마음의 이론(theory of mind)이라고 할 수 있다(Bruner, 1990; Greenwood, 1991, 1999; Kashima et al, 1998; Lillard, 1998; Wellman,

¹ 교신저자 : 김기범(156-756 서울시 동작구 흑석동 221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66purple@hitel.net)
본 논문을 심사해 주신 익명의 세분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1990; Wertsch, 1998). 이러한 접근은 그 동안 한국인 심리학 연구가 일반인들의 일상적인 언어에 초점을 맞추어 그 현상을 심리학적으로 개념화하고 경험적으로 연구해 온 방법과 유사하다.

한국인들에게 마음은 서구인들에게 자기(self)가 물질(entity)의 특성을 보이듯이(최상진, 김기범, 1999a; Choi & Kim, 2002) 생각과 행위 및 감정을 주관하는 주체(agent)이고, 정의적(情意的)인 요소와 인지적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최상진, 한규석, 김기범, 2000, 2001).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인들이 일상 생활 속에서 경험하는 정(情) 마음에 초점을 맞추어, 정든 관계에서 당사자와 상대방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서로의 마음을 추론하는 과정을 질적 연구 방법 중의 하나인 이야기(narrative) 분석을 통해 접근하고자 한다.

문화와 심리의 이해도구로서의 '일반인 심리학(Folk Psychology)'

전통심리학에서는 인간의 마음과 심리를 연구할 때 뇌 속에 장착된 하나의 장치를 찾고자 함으로써 문화를 등한시했고, 인간과 문화의 관계를 단절시켰다. 그러나, 인간의 마음은 사회, 문화와 결코 단절될 수 없는 것이다(Bruner, 1990; Glassman, 1996; Greenwood, 1999; Miller, 1999; Vygotsky, 1978; 최상진, 2000; 최상진 등, 2000). 인간은 사회, 문화에 따라 변하는 동시에 행위 발동자(agent)로서 사회, 문화에 새롭게 적용하고 반응한다. 이러한 문화와 심리의 관계를 논하면서, Bruner (1990)는 의미(meaning)와 의미 구성에 내포된 과정을 심리학의 중심 개념으로 놓고, 심리학을 인간이 외계활동과의 접촉을 통해 만들어낸 의미를 찾는 것으로 보았다(p. 33-36). 여기에서 Bruner가 말하는 의미는 인간의 세상에 대한 해석이라 할 수 있다

의미나 해석이 중요한 이유는 구성주의를 제안한 Goodman에 의해 설명된 바, 인간이 인지하고 지각하는 것이 동물과 다른 이유는 대상의 속성에 따라 다른 것이 아니라, 사회, 문화적으로 구성된 인지자, 지각자의 해석의 틀 및 도구에 따라 다르다고 주장한데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문화는 상징체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구성할 수 있는 것이다. 인간은 문화 내에서 문화의

상징체계를 습득하게 되고, 그로 인해 해석의 틀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관점은 문화라는 것이 정신(mentality), 세상에 대한 관점(worldview) 혹은 가치(value orientation)와 같은 통합되고 매우 일반적인 구조의 형태로 내재화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전제를 내포하고 있다(Hong, Morris, Chill, & Martinez, 2000).

Bruner(1990)가 의미의 구성과 과정 및 해석을 심리학의 중심 개념이라고 확신한 데는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경험과 행위가 어떻게 의도적 상태에 의해 형성되는지 알아야하고, 이러한 의도적 상태가 문화라는 상징적 체계 속에서 활성화될 때 현현된다는 전제에서 가능했다. 또한 그는 문화와 의미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이 일반인 심리학(folk psychology)이라고 보고 있고, 모든 문화는 가장 강력한 구성적 도구 중의 하나인 일반인 심리학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p.35). 일반인 심리학은 사람들이 세상과 상호작용하고 세상에 대한 지식을 쌓고 세상에 대한 경험을 구성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더불어, Goldman(1993)은 의식(consciousness)에 대한 상식적 수준의 이해(common-sense understanding)가 곧 일반인 심리학이라 하였고 이것은 정신 개념에 대한 일반인들의 레퍼토리와 같은 것으로 보았으며, 일반인들은 마음에 대한 이론을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의 이러한 입장은 과학 심리학이 일반인의 물리학(folk physics)을 연구하듯(다시 말해, 물리현상에 대한 일반인의 이해방식 혹은 오해에 대한 연구), 일반인 심리학을 연구해야 한다는 주장이기도 하다(또한 Churchland, 1991; Greenwood, 1999).

Haselager(1997)는 일반인 심리학이 지난 20년 동안 인지과학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주요 논쟁의 대상이 되어왔음을 지적하며, 일반인 심리학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일반인 심리학은 행동을 기술하고, 설명하고 혹은 예측하듯, 우리 일반인들의 신념, 욕구와 다른 여러 가지 정신 상태 및 과정에 대한 얘기이다. 또한 왜 일반인 심리학이 인지과학에서 문제시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그는 일반인 심리학이 하나의 이론이기 때문이라고 대답한다. 또한 그는 신념과 욕구가 일상생활에서 기술하고 설명하고 예측하기 위한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이론적 개념들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Bruner는 모든 문화가 가장 강력한 구성적 도구로 일반인 심리학을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이는 모든 문화권에서 내부자들 간에 소통하고 있는 언어와 개념이 다른 문화권에 적용하거나 번역할 때조차 쉽지 않음을 인류학적 접근들을 통해 소개하면서, 'ethno-'적인 문화심리학은 Heider(1958)가 말한 것처럼 심리학자들의 심리학이 아닌 일반인들의 심리학, 즉 일반인들의 경험에 의미를 부여하는 상식심리학(naive psychology)이 되어야 함을 지적하고 있다. 그는 또한 일반인 심리학의 구성요소이자 전제가 되는 것으로 사람들이 어떠한 것에 대한 신념과 욕구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세상이 어떠한 방식으로 조직되어 있고, 우리는 어떠한 것을 원하며(want), 그러한 것들은 다른 어떤 것보다 더 문제가 될 수 있다…… 것을 믿는다(believe)"라는 것이다(p. 39). 사람들이 현재뿐만 아니라 과거나 미래에 대해서도 신념을 갖고 있다는 것을 또한 믿는다(혹은 알고 있다). 따라서, 사람들의 신념과 욕구가 행동과 삶의 방식에 일관되게 나타나고, 그러한 일관성은 사람을 특정 지을 수 있는 기질이나 성격으로 보여질 수 있다(또한 Wellman, 1990).

또한 사람들의 욕구와 신념은 사람들을 둘러싸고 있는 세상과 상호작용하고 서로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일반인 심리학에서 사람들은 신념의 형태로 세상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전제되고 있고, 욕구 혹은 행위를 실천하는데 필요한 지식을 사용하고 있다고 가정되고 있다. 요약하면, 일반인 심리학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걸친 시간 속에서 어떠한 목적을 추구하고, 가끔은 뜻하지 않은 장애물도 만나게 되는데, 그때 이러한 신념과 욕구에 근거해 어떠한 것을 하는 인간 행위자(human agent)에 관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입장에 대해 Kashima, McKintyre와 Clifford (1998)는 인간의 행위에 대한 일상의 이해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고, 심리학적 연구에서 마음에 대한 그러한 이해가 중요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를 일반인 심리학으로 보고 있다. 일반인들의 마음에 대한 개념은 최근 심리철학(philosophy of mind) 분야(Greenwood, 1991), 발달심리학(Bartsch &

Wellman, 1995)에서 많이 연구되고 있다. 마음과 관련된 철학분야에서는, 일반인 심리학이 마음에 대한 과학적 연구를 포함해야 하는지, 하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뜨겁게 일고 있다.

이러한 논쟁과 논란에도 불구하고, 몇몇 철학자들과 발달심리학자들은 일반인 심리학의 기본적인 구성요소로 신념(beliefs)과 욕구(desires)를 들고 있다(Bruner, 1990; Bartsch & Wellman, 1995; Haselager, 1997; Stich, 1996)2). 예를 들어, 만일 '한 행위자가 어떠한 결과를 원하고 그 결과가 어떠한 행위를 함으로써 얻을 수 있다고 믿는다면 그 행위자는 그 행위를 한다'고 본다. 그러나 신념과 욕구는 즉각적으로 행위를 표출하지 않고, 의도(intention)를 매개로 하여 행위를 표출하게 되며 신념-욕구와 행위의 인과 관계를 형성한다.

이러한 접근은 일반인 심리학이 인간 행위의 인과 구조에 대한 일반인들의 이해 방식을 함축하고 있음을 의미한다(Kashima et. al., 1998). 사람들이 신념, 욕구와 의도와 같은 말을 인간의 행위를 이해하고(understand), 예측하고(predict), 설명하기(explain) 위해 사용한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따라서, 인간 행위에 대한 우리의 일반인 심리학적 이해(belief), 예측(desire)과 설명(intention)은 아마도 관찰된 행동의 분류와 일반인 심리학적 마음의 범주(category) 내의 사건에 근거할 가능성이 크다. Bruner(1990)는 이것이 이야기(narrative) 속에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또한 Wertsch, 1998, pp. 78-86).

문화적 대인 정서 : 정(情)과 정마음

최상진(2000)은 한국 문화의 대표적 정서로 정(情)과 한(恨)을 들고 있는데, 특히 정은 대인관계적 측면 즉 상호작용적인 측면과 성격적 특성이 있음을 지적하고

론은 수반론(supervenience of the intentional on the physical)으로 기울고 있으며, 최근에는 물리주의자(Kim, 1996)들과 논리적 행동주의자들에 의해 정신적 상태는 반드시 물리적 상태로 구성되어야만 된다고 보고 있다(Stich, 1996). 이후 행위를 표출하는, 행위 속에 내재되어 있는, 그리고 행위의 원천으로서 동기, 의미, 생각, 의도 욕구 등의 마음이 개념된 intentionality(지향성) 개념이 등장하였다.

2) 이를 신념-욕구의 심리학(belief-desire psychology)라 부르는 것도 한다.

1) 그러나 마음(mind)에 대한 서구의 심리철학이나 이론들은 신체(body)와의 관계에서 문제시되고 있는데, 초기의 이원

있다. 이러한 접근 은 정서 발생의 맥락과 담론의 과정을 통해 언어적 매개가 중요함을 지적하는 것이고, 일반 사람들이 실제의 삶의 과정에서 활동을 통해 경험되고 있는 정서임을 강조하는 것이다.

최상진 등(1990, 1995, 2000; Choi & Choi, 2001)은 정에 관한 연구를 통해 네 가지의 차원을 구분하였는데, 정의 구성적 차원으로 역사성, 동거성, 다정성과 허물없음을 들고 있다. 이는 모두 대인 상호작용 속에서 경험될 수 있는 현실이다. 즉 한국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는 현실인 것이다. 이러한 정은 일상 생활 속에서 활동을 통해서 경험되고 이해되며, 정 든 관계에서는 마음이 든든하고 서로에게 의지될 수 있다는 긍정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 반면에, 정은 상대방에 대한 배려나 이김, 보살핌 등으로 자연스럽게 들기도 하지만, 어려운 일, 굳은 일, 힘든 일을 함께 하고, 서로 싸우면서도 서로의 본마음이 그렇지 않다는 신념이 있어 들기도 한다(최상진, 김지영, 김기범, 2000).

또한 한국인들에게 우리성이 중요함을 지적하고 있는데, 상대방을 '우리'나 '우리편'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나 자신의 이해관계를 초월하거나 희생한다는 자세로 상대를 위한 행동을 해야한다고 보고 있다(최상진, 2000). 한국인들은 이러한 행동을 나에게 마음을 주는 행동, 나에게 마음을 써주는 행동 또는 나를 아껴주는 마음으로 해석한다. 이처럼 이해관계 없이 마음을 주거나, 마음을 써주거나, 생각해주는(아껴주는) 마음을 서로 주고 받을 때 그러한 행동을 정을 주는 행동으로 생각하며, 그러한 정을 주는 행동이 누적될 때 정이 깊어진다라고 생각하고, 이러한 정을 서로 주고받는 관계를 정든 관계라고 말한다. 가족관계를 원형으로 하는 정든 관계는 일반적 사회관계에서 이보다는 크게 약화된 또는 희석된 상태의 정의 형태를 띠고 있다. 한국인들은 서로 상대의 나에 대한 정을 간주관적으로 공확인(social intersubjectivity)할 때 우리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이처럼 우리가 되었을 때 한국인들은 서로 상대를 집안식구처럼 편안하고 든든하게 느끼며, 깊은 우리성 관계에서는 사회적 격식을 크게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한국 사람들이 집합주의적이고 관계지향적인 성향이 강하다는 기존의 연구 결과 (차재호, 정지원, 1993; 최상진, 2000; 최상진, 김기범, 1999a; 최상진, 한

규석, 1998; 한규석, 1991; Choi & Choi, 1994, 2001; Choi & Kim, 2000; Hofstede, 1991; Triandis, 1995)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 사람들은 가족같은 친구나 가족처럼 가깝게 지낼 수 있는 사람들(일차적 집단)을 만나고 사귀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욕구는 기본적으로 보편적인 부모와 자녀간의 애착(attachment)과 사회적 동기 중의 하나인 제휴(affiliation)의 욕구가 자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Cooley, 1902). 이러한 생물학적이고 사회적인 욕구는 문화에 따라 정도의 차이가 나타나고, 집합주의 문화중의 하나인 한국의 경우 더욱 강하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인간관계를 중요시하는 한국 문화의 특성상 이러한 욕구는 관계맺음 욕구로 귀결되고 있다.

다른 한편, 우리성-정관계에서 두드러지는 점은 그 기능적 측면인데, 정관계를 형성하고 우리라는 인식을 갖게 되면 심리적으로 편안한 긍정적인 상태에 도달하게 된다(최상진, 2000). 따라서, 정서적 편안함과 가까운 사람과 함께 하고 있고, 할 수 있다는 긍정적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도구적 기능을 함축하고 있다. 이러한 기능은 우리라는 매개를 통해 정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정서적 만족감이라는 기능과 그러한 기능을 추구하고자 하는 욕구를 도구적으로 활용하게 된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 볼 때, 한국인들에게는 우리라는 인지적 범주(category), 즉 도식과 그러한 도식에 따른 정서적 반응이 공존하게 되고 이러한 측면이 동기나 욕구의 형태로 표출될 가능성이 높다. 다시 말해, 나는 '어떤 사람이 필요하고, 그 사람과 함께 있기를 원하며, 하나라는 공동체 인식을 갖고자 한다'라는 욕구를 가질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인의 정 마음은 이러한 우리라는 인식과 욕구가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가정해 볼 수 있다. 요약하면, 상대방을 우리 집단 내지 우리편이라고 느껴질 때 정을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로 발전할 수 있고, 정든 관계인 당사자들은 우리 집단 의식을 갖게 된다. 또한 우리성 관계에서의 상호작용 논리는 심정논리에 의한 다분히 욕구-감정관계적 해석과 판단을 하게 된다(최상진, 김기범, 1999b; 최상진, 유승엽, 1996). 이러한 심정논리에 의한 대화나 담론은 우리 편임을 인식하게 되는 단초를 제공하기도 한다³⁾.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인들의 정 상호작용은

우리 집단내의 당사자적 경험에 의한 행위 이면의 마음을 가늠하고 마음 씩씩이에 따라 가깝고 멀을 가늠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문화적 정서인 정은 근본적으로 문화적 신념과 우리 집단의 욕구를 반영하는 것이고, 이러한 신념과 욕구는 감정과 인지가 복합된 형태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한국인들은 정은 자연스럽게 드는 것이고 서로를 아껴주고 믿으며, 힘든 일을 함께 하고 오랜 시간을 함께 지내고, 간혹 서로 싸우거나 미운 짓을 해도 본마음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고 또한 그렇게 믿고 있다. 정은 어떠한 특별한 사건이나 행위를 통해 드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생활 속에서 일상의 활동을 통해 드는 것이다. 그러나 일상 생활 속에서는 사람들은 정이 들었음을 인식하지 못하다가 어떠한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사건이나 계기로 인해 정 든 관계에서 나타나는 일상성, 규범성 혹은 정 전성이 깨질 때 비로소 정이 들었음을 알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일상 생활의 정 경험을 이해하고 설명하는 방식 즉 일반인 심리학적 관점에서의 정 경험의 이해 방식과 설명 방식을 이야기(narrative) 분석을 통해 알아보려 한다. 정 든 대상과의 관계에서 일상적인 활동과 일상성을 벗어나는 어떠한 사건과 계기에 대한 이야기는 정 든 사람들간의 관계와 상대방의 본마음이 정이 들었음을 추정하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고, 상대방과 자신의 마음 경험을 분석하는 자료가 될 수 있다.

3) 우리편 논리는 가상적이거나 또는 현실적인 상대편이 있다는 것이 전제된 논리로서, 자기 개인의 생각이나 이해관계 보다는 우리 집단의 목표나 규범을 더욱 우선시 하는 논리이다. 또한 우리편 논리에서는 옳고 그름이나 사회적 정의는 중요한 고려 또는 판단 차원으로 작용하지 않으며, 반대로 우리 집단의 응집력과 우리 집단의 사적인 이해관계가 중요한 판단의 준거가 된다. 다른 한편 심정논리는 우리성 관계에서 밖으로 드러나지 않은 상대방이나 자신의 속마음(unmanifested inner mind)과 속 감정(inner feeling)의 욕구와 논리에 따른 사고형식을 말한다. 이러한 심정논리의 사고형식은 사리논리나 사회적 이성논리의 사고형식과 대비되는 것이다. 심정논리에서는 상대와의 관계가 중요하게 고려되며, 밖으로 드러난 사건적 사실에 대한 이성적 판단보다는 마음속에서 전개되는 욕구-감정관계적 사건해석이나 논리적 귀결이 사고나 주장전개의 기초가 된다(최상진, 2000).

방 법

Bruner(1990)는 일반인 심리학에서 신념에 어긋나는 일이 벌어졌을 때 이야기가 구성된다고 보고 있다. 내용이 사실이나 거짓이냐는 중요하지 않고 이야기의 구조에 맞게 의미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사건의 기술은 우리가 세상을 구성하고 생각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또한 이야기 형태를 띠고 있는 이야기는 현실 속의 사건을 가장 가깝게 반영하고 있다. 즉, 언어를 현실 구성의 도구로 보고 있는 것이다.

그는 이야기의 중요한 속성으로 고유의 계열성(sequentiality)을 들고 있는데, 이는 이야기가 인간이 행위자로서 혹은 주체로서 발생하는 사건 및 정신적 상태의 독특한 연속성을 가지고 구성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연속성이 전체적으로 어떠한 형태(configuration)를 띠며 의미를 가지게 된다⁴⁾. 두 번째 특징으로 narrative는 이야기로서 갖게되는 힘을 유지한 채 현실적(real)이거나 상상적(imaginary)일 수 있다. 또 다른 특징으로 예외성과 일반성간의 연관성에 관한 것이다. 일반인 심리학은 정전성(canonicity)을 갖는데, 이는 예측가능하고 일상적인 일에 관한 것이다. 문화적 정전성은 '그러하며 마땅한'(소이연 -소당연) 것으로 사람들이 숨을 쉬면서도 공기의 고마움을 모르듯 일상생활 속에서 습관처럼 무의식적으로 하게 되는 생각 및 행동들이다. 예를 들면, 사회적 상황이나 관계에서 한국 사람들이 습관처럼 하는 행동들은 문화적으로 '그러해야 함'을 서로 인정하고 알고 있는 것으로 전통성을 갖게 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비규범적이거나 비정전적인 즉 예외적인 사건이 발생할 경우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이유를 갖게 되고 어떠한 의도가 있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게 되는데⁵⁾, 이때 발화되는 것이 이야기이고 이것은 기승전결의 구성 형태를 띠게 되고 발화자에 의해 의미를 부여받게 된다. 또한 비정전적인 사건에 대한 이야기는 정전적인 사건에 근거해서 이야기를 구성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Ratner(1997)는 심리적 현상이 발생하는

4) 이것을 줄거리(plot) 혹은 fabula라고 한다.

5) When things are as they should be, the narratives of folk psychology are unnecessary(Bruner, 1990, p. 40).

상황과 발생하지 않는 상황을 연구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pp. 72-73). 즉 규범적이고 너무나 당연한 일에 대한 경험보다는 규범적이지 않고 흔하지 않는 사건에 대한 경험이 그 현상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고 규범적인 것을 준거로 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정 드는 상황에 대한 사람들의 경험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정 들지 않는 상황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정 든 상황에 대한 해석을 정세화할 수 있다. 이와 유사하게 Harre와 Gillett(1994)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 행하는 것을 이해하고자 한다면, 어떤 상황이 그 사람에게 의미가 있고 어떤 상황이 의미가 없는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pp. 20-21).

따라서 경험을 구성하는 이야기의 역할은 도식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도식은 문화적 틀(frame)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이러한 문화적 틀은 사회적이다(Bruner, 1990; Hong et. al., 2000). 다시 말해, 문화라는 객관적 구조가 여러 가지 형태로 사람들의 심리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여기에서 활성화된 문화적 마음은 이야기라는 형태로 구술되고 구성되며 의미를 부여받게 된다(Hones, 1998; Norman, 2000; Smith, 1999; Wertsch, 1998). 이와 같이 문화적 마음(심리)은 경험에 의해서 구성되기 때문에 마음의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질적 접근이 선행되는 것이 좋다. 질적 접근은 문화적 마음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질적 연구방법의 하나로 면접을 들 수 있고, 면접의 형태 중 하나인 이야기 분석은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먼저, 이야기 접근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들 스스로 자신들의 정체감과 경험에 대해 어떻게 의미를 부여하는지에 관심을 두고 면접 자료를 분석한다. 이러한 방법론은 연구자가 피험자들의 경험에 더욱 근접할 수 있게 한다(Rice & Ezzy, 1999, p. 131). 따라서 이를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면접(interview)의 과정이 필수적이다.

면접은 특히 세상사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의미에 대한 이해를 연구하고, 그들의 경험과 자신들이 이해하고 있는 바를 기술하거나, 그들 자신의 삶 혹은 세상에 대한 관점들을 알아보고자 할 때 적합한 방법이다(Kvale, 1996). 사회과학분야에서 면접은 최근까지 방법론으로서 많이 사용된 것은 아니다⁶⁾. 그러나 기계문명

(예를 들어, 녹음기)의 발달과 현실에 대한 포스트 모던적 사회 구성주의, 텍스트의 의미에 대한 해석학적 접근(hermeneutical interpretation), 의식에 대한 현상학적 기술, 사회 역사적 맥락에서의 인간 활동에 대한 변증법적 상황 등에 대한 사조 이후 질적 연구방법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면서, 일상생활의 체험, 일상 언어, 의미 및 상호관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가고 강조되었는데, 이야기와 대화(conversation)는 오늘날 과학적 지식을 포함한 세상에 대한 지식을 얻기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Kvale, 1996, pp. 8-9; 또한 Crossley, 2000; Shotter, 1995; Gergen & Thatchenkery, 1996). 그러나 아직까지 질적 연구방법에서의 표준화된 규칙 혹은 일반적인 방법론적 전통은 미비하고 지침서 또한 부족한 상태이다.

면접의 가장 큰 매력은 피면접자의 이야기를 어떠한 구조화된 틀이나 형식에 맞추어 듣는 것이 아니라 개방된 상태에서 그(녀)의 세상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듣는다는 점이다⁷⁾. 다시 말해, 피면접자는 자극에 대한 수동적인 반응자가 아니라 능동적인 이야기꾼(story teller)이 되는 것이다(Fontana & Frey, 1994; Hollway & Jefferson, 2000).

면접 연구의 한 형태로 반구조화된(semistructured) 인터뷰가 있는데, 이러한 형태는 연구자가 기본적인 틀을 갖춘 상태에서 피면접자의 자유로운 반응을 이끌어 낼 수 있다. 면접 연구를 시행하고자 한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이 면접의 목적이 무엇인가인데, 대부분 경험적이거나 이론지향적이다. 경험적이라하면 경험적인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면접 연구를 시행하는 것이고, 이론지향적이라는 것은 이론을 적용하거나 검증하기 위해 면접 연구를 시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연구자가 면

6) 면접은 고대에 지식을 획득하는 한 수단이었다. 소크라테스는 철학적 지식을 얻기 위해 대화를 사용했다.

7) 물론 면접 연구를 시행할 때 체계화된 절차와 분석의 과정이 요구된다. 먼저 면접을 하기 위해서는 주제에 대한 개념을 기술하고 연구의 목적을 형식화해야 한다. 즉 왜 이 연구를 하는 것이고 무엇을 연구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자의 확고한 신념이 있어야 한다. 두 번째로, 연구를 시행하기 위한 방안을 기획해야 한다. 다음으로 면접을 실행하고, 이를 기록화한 후, 분석에 들어가게 된다. 분석 단계에서는 일반화와 타당성 및 신뢰성이 중요한 문제가 된다. 마지막으로 이를 보고하는 순으로 진행된다(Kvale, 1996, p. 88).

접을 시행하기 전에 연구의 목적을 분명히 한 후 이를 예비적으로 실시(pilot interview) 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개인의 이야기를 얻기 위해서는 자서전이나 일기, 혹은 자신과 대화를 하는 방법 등이 있다. 면접에서는 이러한 측면을 반영하기 위해 면접 protocol을 반구조화된 면접으로 실시하고 면접의 구체적인 내용은 먼저 피면접자의 생애와 관련된 이야기를 소설이나 연극과 같이 기승전결 혹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줄거리(plot)를 가지고 이야기하도록 하고, 주요생활 사건(예를 들면, 정이 든 사건이나 정 떨어지는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요구하며 그러한 일에 대해 무엇을 생각하고 느꼈는가를 질문할 수 있다(Crossley, 2000, pp. 68-86; McLeod, 1997, pp. 38-53). 본 연구의 내용과 관련해, 생애에 대한 이야기는 정든 관계의 역사성 즉 시간 속에서 두 사람간의 관계에 관한 이야기를 도출해 낼 수 있고, 주요 생활 사건에 대한 분석은 비정전적인 사건의 발생으로 정전적 사건이나 상황에 준거한 설명을 분석할 수 있다. 이러한 질문과 대답으로서의 이야기를 통해 사건에 대한 이해방식과 설명방식을 통해 면접자는 피면접자가 경험한 사실을 조직하고 구성하며 어떤 의미를 만들어내는데 대해 알아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람들의 체험(lived experience) 속에 내재되어 있는 마음을 분석하기 위해 질적인 연구 방법이 선행되어야 하고, 이를 위한 한 가지 방법으로 면접(interview)을 실시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면접을 통해 얻어진 자료로서의 이야기를 분석함으로써 상대방의 행동에 대한 이해는 마음으로 경험되고 경험된 마음은 내용을 갖고 있으며, 이러한 내용은 상대방에 대한 심정공감이나 심정담론의 과정을 거쳐 느껴진 마음으로 구성됨을 가정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한국문화에서 한국인들이 정 상호작용에서 마음경험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 가를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면접 도구 및 절차

면접대상자: 대학생 14명을 대상으로 하여 정든 사람과의 관계에서 자신들의 정 경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고 어떻게 설명하며, 어떤 의미를 두고 있는가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면접을 실시하였다⁸⁾. 남학생 6명, 여

학생 8명이 본 연구에 참여하였고, 평균연령은 26세였다. 여학생의 평균연령은 27세였고, 남학생의 평균연령은 25세였다. 면접시간은 13분에서 20분 정도로 진행되었으며, 평균적으로 15분에 걸쳐 시행되었다.

본 면접을 실시하기 전에 예비면접을 실시(2001년 4월 한달 간)한 후 녹화된 비디오 분석을 통해 면접 항목을 수정하거나 첨삭하였다. 면접은 2001년 5월 4일부터 6월 5일까지 실시되었고, 면접대상자는 대부분이 심리학을 전공하지 않은 대학 3학년 내지 4학년 학생들이었다. 면접은 연구실에서 실시되었고, 면접 상황은 면접대상자와의 사전동의를 얻은 후 비디오로 녹화되었다. 면접은 실시 기간 동안 한 명이 계속적으로 실시하였다. 면접의 진행은 먼저 면접자가 피면접자에게 질문을 하고, 피면접자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식으로 진행되었다. 본 연구는 어떠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면접이 아닌, 탐색적 연구이기 때문에 비교적 개방적(open)이고 구조화되지 않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면접도구 및 절차: 본 면접에서 사용한 주요 질문 항목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부분에서는 먼저 가족을 포함한 주변에서 가장 정든 사람을 생각하면서 면접에 임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정 경험과 관련된 개인의 이야기를 얻기 위해서는 몇 가지 면접 protocol이 필요하다. 먼저, 개인의 인생 역사에 대한 이야기(Life chapters), 예를 들면 정든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린 시절부터 지금 혹은 미래의 관계까지를 포함하는 이야기를 통해 분석할 수 있고,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아! 내가 이 사람과 정이 들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은 적이 있는지, 있었다면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된 사건이나 계기(Key events)에 대해 물어보고, 그것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에 대한 설명을 들어봄으로 일반인들의 사건에 대한 설명

8) 일반적으로 면접에서 필요한 피면접자 수는 연구 목적에 따라 다르다. 질적인 면접 연구에서는 피면접자의 수가 너무 많거나 혹은 너무 적은 경향이 있는데, 만일 피면접자의 수가 너무 적다면 일반화가 불가능하고 집단간의 차이에 대한 가설을 검증하기 힘들게 된다. 만일 그 숫자가 너무 많게 되면, 면접 내용에 대한 해석이 힘들게 된다. 그러나, 심리학의 역사를 보면 연구의 목적이 일반적인 지식을 얻기 위한 것일 때 비교적 적은 수의 집중적인 사례연구를 수행해왔다. 현재 인터뷰 연구에서는 피면접자의 수가 15 ± 10 인 경향이 있다(Fontana & Frey, 1994; Kvale, 1996, pp. 101-103).

과 이해방식(Personal understanding)을 알아볼 수 있다. 다음으로, 일상의 활동에 그 사람과 함께 있거나 만나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 알아봄으로써 일상의 활동이 심리로 내재되는 과정을 분석해 볼 수 있다.

면접의 두 번째 부분에서는 비정전적이고 예외적인 사건에 대한 질문을 하였는데, 주로 정든 대상과 싸운 경험이 있었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싸움의 일어나게 된 사건과 싸운 후의 느낌을 물어봄으로써 그러한 사건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고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설명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러한 비정전적인 사건이나 상황에 대해 물어봄으로써 이야기를 활성화시킬 수 있고, 이야기를 통해 자신의 경험을 조직화하는 형태를 분석해 볼 수 있다.

분석방법 및 절차

생애이야기, 정든 사건이나 계기 및 이해(설명)에 대한 면접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3명의 대학원생이 자료를 보고 각 내용의 주제(theme)를 정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방법 및 절차는 연구자 개인의 주관적 해석이나 이론적 지향점을 배제하기 위한 방법이기도 하다. 또한 내용분석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이기도 한다. 자료의 내용 특성에 따른 분류를 일차적으로 실시하고 내용 속에 잠재되어 있는 형태(pattern)를 찾은 후 이에 대한 삼자간의 동의와 합의점을 찾아가는 과정이다(Potter & Levine-Donnerstein, 1999). 세 명의 분석자는 내용분석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개인적으로 자료를 분석할 때 coding scheme을 만든 후(본 분석에서는 각 내용에 해당되는 주제 찾기), 이를 서로 비교하고 기준점 내지 표준 형식을 선택하도록 하였다. 또한 내용분석의 신뢰도를 얻기 위해 안정성(stability)을 보았는데, 삼자간의 분석이 1차 분석에서는 75%의 의견일치가, 2, 3차 분석에서는 각각 85%와 90%의 의견일치가 있었다. 이는 평균적으로 83.3%의 의견일치를 보였으므로 분석의 안정성과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결 과

피면접자들은 정이 가장 많이 든 대상으로 어머니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친구, 언니(혹은 누나)

의 순이었다. 남학생들의 경우 친구가 가장 많았고, 여학생들의 경우 어머니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1 참조). 이러한 결과는, 비록 14명을 대상으로 한 면접이지만, 기존의 정에 관한 연구들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정 의 원형이 가족에 있고, 정든 대상으로 어머니가 가장 많은 반응을 나타낸 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이다.

표 1. 면접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 및 정든 대상 빈도 분석 결과

항목 \ 성별	남자	여자	계
사례수(명)	6	8	14
평균연령(세)	25	27	26
면접시간(분)	12	14	13
정든 대상 ()은 빈도수	1. 친구 (3) 2. 누나 (2) 3. 어머니 (1)	1. 어머니 (5) 2. 친구 (2) 3. 언니 (1)	1. 어머니 (6) 2. 교친구 (5) 3. 언니/누나 (3)

또한 정든 사람과 일상적으로 무엇을 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이야기를 한다(전체 응답 29가지 중 17개)’와 ‘일상적인 활동(10개)을 한다’(예를 들면, 같이 밥먹고, 술마시고, 쇼핑을 한다 등)고 응답했다. 이러한 결과는 정든 대상과 일상에서 공유하는 활동이 평범함을 나타내는 것인데, 정은 오랜 시, 공간적 공유를 전제로 하고 있음을 감안해볼 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저절로 자연스럽게 정이 들 수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1. 가족관계 이야기 분석

1) 생애 이야기(Life Chapters) 분석

이야기 분석을 위해 정든 대상과의 관계 역사성에 대한 이야기를 자신의 자서전을 쓰듯 얘기하도록 피면접자들에게 요구한 결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정든 대상이 부모일 경우 정이 들었음을 모르던 어린 시절부터 어떠한 특별한 사건이나 계기가 있었던 학동기 및 청소년기 시절과 정이 들었음을 알게 되는 현재로 구분하여 분석할 수 있다.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첫 번째 응답자인 한 여성

표 2. 가족관계에서의 생애 이야기 분석

번호	응답자	단 계	내 용	주 제
1	여자 (엄마)	1단계 : 어린 시절	어릴 땐, 엄마가 너무 바쁘셨다. 생계를 책임지셨다. 학교에 갈 때 엄마보고 귀가했을 땐 엄마 없고 엄마가 필요했지만 내게 도움을 줄 수 없었다. 어렸을 때 유모 할머니가 날 키우셨다. 신생아 때부터 성장기동안 엄마랑 같이 있지 못했다. 그러면서 내 안에 부모로서의 엄마만이 있었다.	정이 없음
		2단계 :오빠, 아버지의 죽음	오빠가 돌아가셨을 때 엄마에 대한 원망이 컸다.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까지만 해도 엄마에게 정이 없었다. 친밀감이 별로 없었다.	죽음과 원망
		3단계 :현재	오빠가 돌아가시고 힘들어하시는 모습을 보았을 때 (지금은 엄마가 혼자니까) 친밀감이 들었다.	정이 듬
2	여자 (엄마)	1단계 : 어린 시절	초등학교 4학년 때 한달 간격으로 팔이 세 번 부러진 적이 있었는데, 엄마랑 싸우고 나서 그렇게 되었다. 그때부터 징크스가 생긴 것 같다. 엄마랑 싸우면 내게 안좋은 일이 생긴다.	갈등
		2단계 : 중학교 시절	엄마가 교육적인 면에서 애를 많이 쓰셨다. 중학교 때 통학시간이 1시간이 걸렸는데, 버스 태워주시고, 하교시 기다려주시고 교복이랑 도시락 챙겨주시고, 집안일 안시키시고, 동네에 소문이 날 정도로 그러셨다.	헌신과 사랑
		3단계 :현재	얼마전에, 자면서 기침을 했는데, 엄마가 걱정이 되셔서 내 방으로 달려오셨다. 그 발소리에 깨어보니 엄마가 기침소리 때문에 걱정이 되어 잠을 못 주무셨다고 하셨다.	애정
3	남자 (엄마)	1단계 : 어린 시절	팔 둘에 아들 하나라서 부모님이 어렸을 때 편애하셨는데, 나는 어렸을 때 부터 편애를 부담스러워했다.	부모에 대한 부담
		2단계 :사춘기	좋은 것 먹이고 주시려고 했을 때... 그것을 거부하려고 했을 때, 아예 부모님으로부터 벗어나려고 사춘기 때는 뼈뺏하게 살아본 적도 있다.	반항
		3단계 :현재	최근에 그러면 안되겠구나 깨닫게 되었다.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그렇게 된 것 같다. 그러나 사춘기 시절에 있던 벗어나고 싶었던 생각 때문인지 부모님께 다가간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	부모에 대한 공감
4	여자 (엄마)	1단계 : 어린 시절	어릴 때 엄마가 직업이 선생님이셨고, 나에게도 선생님이로서 느껴졌는데, 엄마는 모든지 다 잘하고 이해하는 줄 알았다... 엄마를 선생님이로서 공경하고 모든 것을 다할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했었다. 내가 엄마에 대한 기대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엄마가)기대에 못미치다보니 엄마가 그냥 인간일 뿐이다라는 생각이 대학입학 때 들면서 사이가 안좋아져서 얘기도 안했었다.	기대와 현실
		2단계 :성장기	크면서 좀 더 나이먹다 보니 내가 힘들어도 엄마가 예전처럼 지켜봐주고, 그런 것을 보면서 내가 가장 의지할 사람은 엄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해 및 공감
5	여자 (엄마)	1단계 :과거	아버지에 비해서 회생을 많이 하신 것 같다. 아버지는 평범한 공무원. 어머니가, 그래서, 미용실을 하거나 공무원 대상으로 하숙을 하거나 그런 식으로 돈을 버셨다.	어머니의 고생
		2단계 :현재	지금도 집 근처에서 조그만 일을 하시는데, 보통 직장인들처럼 자기 시간 없고, 그게 다 자식들 때문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가슴이 아프고 사랑도 느낀다. 사소한 트러블들이야 언제나 있지만 엄마에 대한 마음이 변했다는 생각은 들지 않는다.	이해 및 공감

주) ()안은 응답자들의 경험에 대한 단계를 구분할 때 현재와의 연결로 인해 반복되거나 생략된 내용을 연구자가 첨부한 사항임. 응답자 난의 성(性)은 응답자의 것이고, ()는 정 든 대상임.

표 2. 가족관계에서의 생애 이야기 분석(계속)

번호	응답자	단 계	내 용	주 제
6	여자 (엄마)	1단계 : 어린 시절	내가 첫째여서 엄마가 믿음직스러워하고 자랑스러워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듣거나 비춰졌던 것 같다. 다른 형제들보다 나에게 더욱 신뢰를 더 갖는다고 생각했는데 동생과 더 좋은 모습을 보면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든다.	오해
		2단계 : 현재	대학 들어와서 이런 것을 더 느꼈던 것 같다.	오해 증폭
7	남자 (누나)	1단계 : 어린 시절	어렸을 때는 남동생과 더욱 가까웠다.	멀게 느껴짐
		2단계 : 군 제대 후 현재까지	군에 있을 때, 제대 후에 정신적 경제적으로 내 필요를 채워주면서 과거에 없었던 정을 느끼게 되었다.	정들
8	남자 (누나)	1단계 : 어린 시절	어릴적엔 누나가 날 데리고 잘 다녔다. 누나가 어딜 갈 때 데리고 다녔다. 초등학교 저학년때 고무줄 인형놀이 같은 거 하고, 누나가 내게 화장도 해주고... 중학교 때, 누나가 사춘기여선지 돌이 크게 싸우고나서(예전에 도 옷, 텔레비전 채널, 음식등으로 크게 다투어왔음) 고3때까지도 가족들과 얘기도 안했다.	갈등
		2단계 : 대학진학 이후 현재까지	(고3때까지도 가족들과 얘기도 안하다가), 나 대학 들어오고 풀렸다.	화해
9	여자 (언니)	1단계 : 어린 시절	어릴 때는 싸우고 치고 받고 그렇게 크다가, 언니는 공부하고 나는 집안일 하고, 언니는 집안일 잘 안하다가, 커서 언니는 직장을 다니고... 그렇게 특별한 것이 없었다.	거리를 둠
		2단계 : 현재	지금도 언니를 언니로서 보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친구라고 생각한다.	친구 사이

주) () 안은 응답자들의 경험에 대한 단계를 구분할 때 현재와의 연결로 인해 반복된 내용임. 응답자 난의 성(性)은 응답자의 것이고, ()는 정 든 대상임.

은 어린 시절 엄마에 대해 정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오빠와 아버지의 죽음이라는 사건 혹은 계기를 통해 어머니를 다시 생각하게 되고, 감정이입을 하면서 친밀감을 느끼게 되었다. 이러한 생애 이야기에 대한 잠재 변인으로서의 주제를 중심으로 분석해 보면, 어린 시절은 정이 없는 시기로, 다음 시기는 오빠와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원망의 시기로, 그 후로 친밀감을 느끼고 정이 든 시기로 분석해 볼 수 있다.

두 번째 피면접자의 생애 이야기는 어린 시절 어머니와의 갈등 상황에 대한 얘기로 시작해서, 중학교 시절 자신에 대한 엄마의 관심과 애정 표현으로 인한 엄마의 심정을 알고 이해하는 시절을 거쳐 두 모녀가 서로를 걱정하고 아껴주는 현재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다. 이 피면접자의 생애는 주제별로 갈등의 시기에서 어머니의 헌신에 따른 사랑으로, 그리고 서로를 사랑하는 사이로 발전되었다고 할 수 있다. 첫 번째 피면접자와 마찬가지로

부모로서의 역할과 기능만을 담당하던 어머니를 헌신과 사랑, 그리고 한 여인으로서의 고독감에 대한 감정이입으로 정이 들었다고 해석해 볼 수 있다.

세 번째 피면접자는 부모의 자신에 대한 편애를 부담스럽게 느낀 어린 시절을 보내고, 사춘기 때에는 부모에 대한 반항과 거부의 뜻을 보였고 현재에는 부모에 대한 공감과 자신에 대한 반성으로 부모에게 좀더 가까이 가고 싶은 상태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고, 네 번째 피면접자는 자신과 어머니와의 관계를 회상하면서, 어린 시절 어머니에 대한 지나친 기대와 이에 따른 실망으로 어머니와의 관계가 소원해졌으나, 성인이 되어 자신의 이상 속에 존재하던 어머니의 모습이 사실이 아니었음을 깨닫고 실제의 어머니의 모습을 보게 됨으로써 어머니를 이해하고 공감하면서 정이 들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다섯 번째의 응답자는 어린 시절 어머니의 고생을 보면서 자랐는데, 이후 어

머니에 대한 이해 및 공감의 과정을 통해 사랑을 깨달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여섯 번째 응답자는 어린 시절 어머니에 대한 오해가 지금 현재에도 풀리지 않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

누나를 가장 정든 대상으로 생각하고 이야기를 한 경우인 일곱 번째 응답자는 어린 시절 멀게 느껴졌던 누나가 군 제대 후 가까워져 정이 들었음을 회고하고 있고, 여덟 번째 응답자는 어린 시절을 함께 하고 놀이를 하면서 누나와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으나 사춘기 이후 누나와의 사소한 문제로 갈등 관계에 놓이는 전환점을 맞게 되었다. 그러나 이후 성인이 되어 서로를 이해하고 오해가 풀리면서 어린 시절 친밀감을 느꼈던 단계로 돌아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아홉 번째 응답자는 언니에 관한 이야기를 했는데, 어렸을 때 멀게만 느껴졌던 언니가 크면서 서로를 받아들이면서 친구 사이처럼 지내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지금까지 9명의 피면접자들의 생애 이야기를 보면, 어린 시절 부모에 대한 실망과 부모와의 갈등 혹은 누나(언니)와의 갈등이 청(소)년기에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함으로써 혹은 상대방의 처지나 심정을 공감함으로써 이후 정이 든 관계로 발전하거나, 어린 시절 가졌던 친밀감이 청소년기에 갈등으로 이어졌으나 이후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함으로써 정이 들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공통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2) 정든(떨어진) 사건 및 계기 분석

앞의 분석 결과에서 본 바와 같이, 응답자들의 정든 대상, 정든 대상과의 일상적 활동 및 생애 이야기를 분석을 통해 그들의 관계 역사성을 알 수 있었고, 평상시에는 정이 들었는지를 모르고 있다가 어떠한 사건이나 계기를 통해 정이 들었음을 추론해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자들은 응답자들에게 먼저 정이 들게 되었다고 생각한 어떤 특별한 사건이나 계기가 있었는지를 알아보았다.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정이 들었다고 생각하게 된 특별한 계기나 사건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가족 성원의 죽음으로 어머니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든가, 싸우고 나서 어머니의 약한 모습에 연민을 느꼈다든가, 어머니의 슬픔을 느꼈다든가, 부모님의 하염없는 너그러움에 감동받았다든가, 장

기간의 이별, 그리울 때 등 정 든 대상과의 어떤 특별한 사건이나 계기를 통해 정이 들었음을 회고하고 있다.

따라서 정은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로 잠재되어있거나 종이 들지 않은 상태에서(혹은 그 것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정이 들었음을 자각 내지 인식하게 되는 전환의 경험을 하게 되는데, 어떤 특정한 사건이나 계기가 그것을 촉발한다고 할 수 있다.

3) 정든(떨어진) 사건 및 계기에 대한 이해 분석

그렇다면 정 경험을 한 당사자들은 정이 들게 된 계기나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그러한 경험에 대해 설명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것은 체험(lived experience)에 대한 설명을 통해 어떤 일관된 형태(well-formed manner 혹은 well-understood manner)를 추출해 낼 수 있다는 문화심리학적 입장에 근거한다(Bruner, 1990; Ratner, 1997 등).

첫 번째 피면접자의 정이 든 계기나 사건에 대한 이해와 설명은 먼저 어머니를 불쌍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이야기로부터 시작되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갈등 속에서 어머니의 입장을 알고 있었으나, 아버지가 죽은 후 활달하던 어머니가 우울해지고 예전 같지 않은 모습을 보이자 어머니를 이해하고 공감함에 따라 측은하게 여겼고, 그러한 생각을 하다보니 친밀감이 들어 정이 들었다고 언술하고 있다. 또한 사소한 말다툼으로 인한 부정적 감정은 이내 어머니에 대한 감정이입과 공감으로 인해 사라지고 어머니를 더욱 이해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감정과 심정 공감으로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공감은 상대방의 심정을 당사자적 입장에서 동일한 것으로 여기게 되는 마음경험 요소라 할 수 있다.

두 번째 피면접자는 연약한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공감과 이해를 함으로써 정이 들게 되었고, 정이 떨어질 만큼 싸운다 해도 당장은 속상하고 서운하지만 어머니와 같은 입장에서 대화를 하고 어머니를 애처롭게 생각하면서 즉 심정공감을 하면서 계속 정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세 번째 피면접자는 정이 든 계기를 자신과 부모와의 갈등과 고부 간의 갈등 속에서 부모니까 그럴 수 있다는 심정적 이해가 정을 들게 된 계기로 보고 있고, 정 떨어지는 부정적 사건에 대해서

표 3. 가족관계 : 주요 사건(Key Events) 분석

사례	정이 든 계기나 사건	주제	(정 떨어질 만큼)부정적 사건	주제
1	아빠 돌아가셨을 때 엄마와 더 친밀하게... 엄마가 힘들었을 때 엄마를 많이 도와주었다	아버지의 죽음	하루에도 몇 번, 사소한 걸로, 나는 덜렁대는데 엄마는 너무 깔끔하셔서, 옷 벗어 놓고 아무데나 걸어놓으면, 니가 여자냐 남자냐 핀잔주신다.	갈등
2	항상. 아침에 싸우고 오면 하루종일 일이 안풀린다. 이럴 땐 꼭 엄마에게 전화해서 화를 풀어야 괜찮아지고, 아빠랑 엄마가 싸우면 항상 엄마 편을 들게 된다. 나이들수록 엄마의 약한 모습을 보게 되니까, 자꾸 엄마 편을 들게되고 화서 괜찮은 것 있으면 엄마 사다드리고 싶고 그렇다.	(부부) 싸움	사소한 일로 싸우게 되는데, 싸우다 보면 내가 싫어하는 것을 말(남들은 그 나이에 시집도 가고 돈도 벌어오고 잘 사는데 너는 그렇지 못하다고 말하는 등)을 하시는데, 그 때 싸움이 커진다.	감정 싸움
3	어머님의 힘들거나 슬픈 모습을 볼 때 같이 슬퍼지는 것을 느낄 때 정이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든다. 어머니가 집안 문제(아버지 사업, 가족문제, 내 결혼 등) 때문에 슬퍼하실 때.	어머니의 슬픔 인식	고3때 공부를 안했고, 지금의 집사람을 만나기 시작했는데, 지금도 부모님은 내가 공부 안한 것이 집사람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다.	오해
4	집에서 계속 신경질 내고 몸쓸 짓을 많이 하고 다녀도 참고 지켜보시며 내가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다가 너 그러는 거 참고 있었다고 하실 때, 친구 같이 느껴질 때 정들었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부모님의 너그러움	첫 번째, 수능 보고서, 그냥 믿고 나하는 대로 믿어주는 줄만 알았는데, 굉장히 믿고 기대를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나에게 실망을 표현하셨을 때. 두 번째, 대학교 2학년때 남자친구를 꽤 오래 사귀었는데, 여러 가지 티가 많이 나니까 그것에 대해 굉장히 히스테리컬하게 간섭하시면서 그것에 실망하게 되었다.	실망
5	외국 여행가서 오랫동안 떨어져 있을 때	이별	청소하라고 했는데, 청소 제대로 안했거나, 용돈 달라고 했는데 생각한 만큼 안주었을 때.	갈등
6	어릴 적엔 엄마가 나에게 뭘 해줄 때 정을 생각했는데, 요즘엔 엄마가 자꾸 늙어가니까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 날 키우느라 늙어가는구나 하는 생각에서 정이 느껴진다.	어머니 이해	1)형제문제. 내가 하고싶은 것을 못하게 했는데 동생에게는 하고싶은 것을 하게 해주었다. 집안사정도 사람성격차이도 있겠다고 생각되어지지만, 결과를 보고 나서 섭섭했다. 2)옷을 사러갔는데 엄마 옷만 보고 다닌것.	섭섭함
7	군대에 있을 때 힘들었는데도 전화도 해주고 자꾸 와서 도와주었을 때, 밥은 먹었냐, 어떻게 지내냐는 등 관심을 보여주는 때.	배려 및 관심	아주 사소한 것. 텔레비전 채널 가지고 싸우는등.	사소한 싸움
8	작년 말에 누나가 미국으로 어학연수를 갔는데, 집에서는 세대차이 등으로 부모님들과 집에서 (얘기할 시간도 없을뿐더러) 얘기를 잘 하지 않는데, 누나가 있었으면 집안에서 더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그리움 아쉬움	기억할 수 없다.	
9	내 것을 좀 못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잘해줄 때, 언니가 얘기 놓고 혼자 기르기 힘들다고(언니가 우울증에 걸렸었다) 내가 돌봐주면서... 필요할 때마다 서로 도움을 주고 받을 때.	상부상조	돈 써달라고 하는데 안켜주었다. 돈문제가 가정상황에 따라 다르고 복잡하다는 것을 이해하긴 하는데, 알뜰게 굴 때.	갈등

또한 부모와 자신의 관계 즉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이고, 어머니의 입장을 이해한다는 설명하고 하고 있다. 여기에서도 중요한 것은 나보다는

상대방이고 상대방에 대한 이해가 갈등을 해결하고 정든 관계를 유지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밖에 부모와의 심리적 거리감이 부모를 이해함으로써

표 4. 가족관계 : 이해(Personal Understanding) 분석

사례	정이 든 계기나 사건	주제	(정 떨어질 만큼)부정적 사건	주제
1	불쌍하다는 생각,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는 결혼 생활 자체가 순탄하지 못했다. 아버지가 많이 안 좋으셨고, 어머니도 이혼하고 싶은 생각이 있다고 하시며 아버지 욕도 많이 하셨는데, 맨날 이혼해야겠다고 생각하시더니 막상 아버지 돌아가시고 (원래 밝고 화끈하셨던 분인데) 우울하시고 순탄치 못하셨다. 약한 여성의 모습을 보면서 엄마에게 (아버지가) 알게 모르게 정신적 지주역할을 하셨구나. 예전엔 그냥 부모니까 라는 생각이었는데, 오히려 약한 모습을 보니 애뜻해지고 안타깝고 그 동안 살아오신게 남편 잘못 만나서 고생하시고 자식 때문에 이혼도 못하고 참으며 인고의 세월을 보내셨다는 생각에 더욱 친밀해졌다.	공감을 통한 당사자적 이해	짜증난다. 왜 그렇게 똑같은 말을 계속 할까. 해봤자 고쳐지는 것도 없는데, 정말 지치지도 않으시는구나하고 생각하니 지겹고 피곤하다...그러나(엄마가 변화된 면)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후에, 활발하시던 성격이었는데 그런게 없어지신 것 같다. 기가 꺾이신 것 같다...저는 요즘사람이고 엄마는 옛날 분이니까, 내가 맞춰드리려고 한다. 그래도 옛날보다는 점점 더 이해가 되는 것 같다.	공감 이해
2	엄마는 항상 가족만 생각하는데, 나는 밖에 나오면 여러 사람을 만나지만 집에만 계시는데 엄마가 계속 속상해하실 것을 생각하게 되면 전화를 하게된다. 그리고 엄마는 나랑 싸우면 우시는데 내가 그러면 안되겠구나하는 생각이 든다.	심정이해	속상하다. 서운하다. 나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엄마까지 그러셔야 하는건지... 엄마가 다칠질인데 둘 다 싸워도 아침에 싸우면 저녁엔 풀린다.	이해
3	마음이 아프다. 부모님이라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현실적으로는 안맞기 때문에, 공감을 하면서도 표현을 다르게 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고부간의 갈등 상황에서.	심정적 이해	욕하는 성질이 있어서, 잘못된 하나에 흥분하여, 부모님께 심한 소리도 하였다. 중고등학교 때부터 군에서 제대하기 전까지 거리를 두고 다녔다...지금도 부모님과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다. 결혼문제 때문에 아직까지도 풀리지 못한 것이 있다. 그러나 혈연이라서 그런지, 여지껏 같이 살아왔고 정들었기 때문에 부모가 아무리 못되고 가난하고 그래도 어쩔 수 없는 것 같다...어머니는 어떨 지 모르겠지만, 어머니의 마음은 이해할 수 있다.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어떤 편을 들어야할지의 갈등뿐이다.	어머니의 마음이해
4	전에는 상하관계로 생각했는데, 정드니까 친구 같다.	이해	정말 한 날 인간일 뿐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다시 좋아지고 포용해주면서 역시 엄마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다. 지금은 엄마가 생각이 많이 바뀌어서 상담도 해주고 남자친구(바뀐 남자임)에게 잘해 주신다.	이해
5	그리움... 당연히 부모님이나 정들고 사랑하는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나가보니 정말 보고싶었다.	그리움	중고등학교 때는 그런 걸로 상처받았는데, 이제는 내가 알아서 할 수 있으니 엄마를 이해하고 지금 좀 힘들구나 하고 생각한다.	이해 공감
6	측은한 마음에 가슴이 정하다. 눈물이 핑돈다.	측은지심	쉽섭하다. 서운하다. 화가 났 말도 안한다... 그러나 지금은 별 일 없다.	쉽섭함 풀림
7	내가 누나에게 잘 못했기 때문에 미안했다.	미안함	미웠다. 내가 남잔데 너 하나 못이기겠다, 여자가 왜 그러냐... 지금은 좋다. 싸우지 않는다.	미움 해소
8	쉽섭하지만 곧 온다.	믿음	며칠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했는데, 굉장히 오래갔다. 그러나 지금은 잘 지낸다.	이해
9	언니를 좋아하니가 도와주는거라고 생각했지. 특별히 어떤 생각이 들었던 것은 아니다.	호감에 따른 도움주기	화가 나서 막 소리를 질렀다. 특별히 화해를 하지는 않았는데 그냥 없었던 것처럼 산다.	마음이 풀림

써 친구같은 느낌을 갖게 되어 이전의 상하관계의 경직이 친구와 같은 평등관계로 발전함에 따라 정이 들게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고, 누나와의 관계에서 정이 들게 된 특별한 사건이나 계기는 없었지만 청소년기의 갈등이 청년기에 해결되면서 지금 현재 떨어져 있어 섭섭하지만 누나가 곧 돌아온다는 생각에 정이 들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정 든 사건이나 계기에 대한 이해 및 설명방식에 상대방에 대한 당사자적 이해 즉 심정공감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한국인들이 정관계에서 심정공감을 통한 마음경험이 정이 들었음을 추정하게 되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는 주장과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해석은 정든 관계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정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사건 및 계기와 이에 대한 설명을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 있다. 표 3과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든 대상과의 갈등, 오해, 감정싸움, 섭섭함을 느낌, 실망 등으로 정이 떨어졌다고 언술하고 있으나, 이는 상대방의 마음에 대한 공감과 이해 등으로 미움이나 실망이 해소되거나 풀렸다고 설명하는 응답자들의 반응을 보고 추론해 볼 수 있다.

또한 피면접자들에게 현재의 관계를 물어본 질문에 대해서 거의 모든 피면접자들은 상대방에 대한 감정이 입과 심정공감을 통해 이해하고 있고 정이 들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더불어 상대방이 응답들에게 정이 들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이야기를 분석해 보면, 상대방과의 관계가 부모-자녀 혹은 형제-자매라는 혈연에 근거한 불가분의 관계이고 자신에게 대하는 행동이나 언행을 통한 마음씀씀이를 통해 추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를 생각하면서 '안쓰럽다', '애처롭다', '불쌍하다', ' 측은하다' 등으로 표현하면서 심정공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 볼 때, 정든 대상과 정이 들었음을 인지하는 것은 상대방을 당사자적 입장에서 공감함으로써 상대방의 마음을 경험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머니에 대한 실망과 원망은 이후 '불쌍하다'거나 '애처롭다'라는 감정을 경험하면서 공감하게 된다.

2. 친구관계 이야기분석

지금까지는 가족관계에서 정든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분석해 보았는데, 친구를 정든 대상으로 생각하여 이야기한 응답자들의 이야기를 분석해 보면, 첫 번째 피면접자의 대학에서 만난 친구에 대한 이야기는 초기 만남 단계의 단순 접촉이 현재의 정든 관계로 발전한 경우인데, 일상의 활동을 공유함으로써 친숙함과 친밀감이 정이 들게 된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다. 두 번째 응답자의 경우에도 대학에서 만난 친구와 함께 지내다 정이 들었다고 이야기했다. 나머지 세 사람의 이야기는 어린 시절이나 학창시절부터 알고 지내던 친구에 관한 이야기로 동고동락하며 살아왔던 이야기들을 하고 있었다. 어린 시절을 함께 지낸 친구와 정이 들었다고 이야기한 다섯 번째 피면접자의 경우, 청소년기 때 서로 싸우다가 화해하고, 이후 함께 자취를 하며 서로에게 필요한 친구임을 깨닫게 되고 친구의 결혼까지 돕는 사이로 발전한 경우이다. 이러한 이야기는 친구를 가족처럼 생각하고 가까이 지낸 경우로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며 정이 든 사례라고 할 수 있다(표 5 참조).

정든 사건이나 계기에 대한 응답내용을 분석해 보면, 친밀감을 느꼈다든지, 어려웠을 함께 이야기했다든지, 자신을 잘 알아준 사람이었다고 느꼈다든지, 함께 동고동락하였을 때라든지, 친구의 어려움을 도와주었을 때 정이 들었다고 회고하고 있다(부록 표 2 참조). 전반적으로 함께 힘들고 즐거웠던 시간을 보낸 것이 정이 든 사건이나 계기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사건이나 계기에 대한 이해 및 설명을 보면, 친구를 이해하고 고마워하며, 자신이 친구를 좋아하고 있음을 자각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부록 표 3 참조). 이러한 설명은 부정적 사건, 즉 정이 떨어졌다고 생각했던 사건이나 그러한 사건에 대한 설명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친구와의 관계에서 정이 떨어질 만한 사건들은 사소한 서운함이나 갈등으로 인한 것이었는데, 이러한 갈등은 친구의 마음을 이해하거나 공감함으로써 정 든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면접자들의 정든 대상과의 일상의 활동과 생애 이야기, 정이 들게 된 계기나 사건, 혹은 정이 떨어질 정도로 싸운 사건이나 계기와

표 5. 친구관계에서의 생애 이야기 분석

번호	응답자	단계	내용	주제
1	여자	1단계 : 초기단계	처음에 학교와서 오리엔테이션 때 왔었던 애들이 너무 (자기들끼리) 친해서 낯 뜰 틈이 없어서, 어떻게 사람들과 친해지나 걱정했었는데,과는 약간 멀어지면서 동아리 활동에 치중했었다. 그 애도 나랑 비슷한 상황이었고, 과방에 갈 때마다 마주쳤다.	단순 접촉
		2단계 : 현재	그러다보니 자연스럽게 같이 다니고... 과방도 같은 방향이다보니 연락해서 같이 다니게 되었다. 처음에 볼 때, 그 애는 차갑고 결벽증적인 스타일이었고, 나는 허물없이 지내는 성격으로 성격차이가 있었다. 그런데 같이 지내다보니 식성도 비슷해지고, 서로에 대한 다른 점들이 서로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는 계기가 되어 동아리에서 사람들이 장난이지만 레즈비언 아니냐는 소리까지 듣게 됨. 그런 얘기를 듣다보니까 더욱 끌리게 되고, 내가 애랑 친숙하구나라는 생각도 하게 됨.	친숙성
2	남자	1단계 : 초기단계	처음에 입학하며 봤는데 그땐 가깝지 않았다. 애가 싸가지가 없어보였다.	오해
		2단계 : 현재	군에서 복학하고나서 친해졌다. 복학하고 힘들 때 친구가 많이 도와주었다. 같이 친구 자취집에서 자고 하다보니 정이 들었다.	동고동락
3	여자	1단계 : 초기단계	고2 때 그냥 같은 반이었는데, 친구는 방송반이었고 나는 아무 씨클도 들지 않았었는데...	생활공유
		2단계 : 고3이후 현재	고3때 친구랑 같은 반이 되었는데 친구의 번호가 14번, 내가 16번이었는데, 면담 다녀오면 서로 물어보고, 둘 다 담임선생님을 싫어해서 욕하다가 친해진 것도 있고, 각자가 좋아하던 선생님이 있었는데, 서로 도와주다가 친해졌다.	상부상조
4	남자	1단계 : 초기단계	같은 반이었고 내가 그 애를 많이 따랐는데, 녀석이 인간도 되었고 공부도 잘했다. 내가 녀석에게 다가가서 친구를 하고자 하였는데, 같이 생활을 하게 되었다.	생활공유
		2단계 : 현재	(같이 생활을 하게 되고), 서울서 같이 학교도 다니고 하면서... 서로 어려운 일 있을 때 가정상황을 서로 잘 아니까 같이 이야기 할 수 있었고, 여자문제와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99년에 계기가 되어서 여행도 가게 되었다.	동고동락
5	남자	1단계 : 학창시절	중1때 학교가 멀어 자전거를 타고 다녔다. 먼거리를 같이 자전거를 타고 다니던 친구들과 오가며 얘기를 나누고, 어머니가 차비주시면 그것으로 오락실가고 그러다가, 중2때 내가 서울로 전학을 왔다. 그리고 좀 지나 친구들이 서울로 놀러와서 서울구경 시켜주고 계속 연락을 하며 서로 왕래하다가 내가 고2때 (고향으로)내려갔다. 그전까지 그런 적이 없었는데 그 때 친구들끼리 싸운 적이 있었다. 그래서 내가 올라가기 전 마지막날 친구들을 모아 놓고 이런 저런 얘기를 했는데, 친구들이 내가 형처럼 말하는 것을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잘 받아주고 화해를 한 사건이 있었다.	유년기 경험 공유
		2단계 : 현재	친구들 중 그 친구가 서울로 대학에 와서 자취를 했고, 그러면서 가까워져서 자주 연락하게 되었다. 한 번은 그 친구가 MT를 가서 술에 만취하여 전화를 해서 나를 좋은 친구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 친구의 선배들이 술을 마시면서 자기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 당장 달려와 줄 친구가 누구냐고 말했는데 내 생각이 났다고 말하였다. 그 전까지는 그냥 동창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나를 가장 친한 친구로 생각한다는 말에 대한 인상이 깊었다. 그러면서 나도 그 친구를 그렇게 인식하게 되었던 것 같다. 그리고서 군복무하면서 서로 면회도 하고 휴가나와서 만나고 그랬다. 그 친구가 기독교 가정의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그 친구는 무교였다.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여자 식구들이 결혼을 반대했었는데, 내가 개입해서 그 친구를 교회다니게 하면서 결혼이 성사되어 올 가을에 결혼을 하게 되었다.	관계 지속

주) ()안은 연구자의 첨부사항임

그러한 사건에 대한 이해와 설명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해 보았다. 정든 관계는 일상의 활동 즉 시간과 공간을 공유하고, 일상적이지 않은 비정전적 사건이나 계기를 통해 가족이나 가족과 같은 관계 즉 우리관계라는 인식을 다시 하게 되며, 이러한 비정전적인 사건에 대한 이해와 설명은 정전적 사건에 준거하여 회귀하려는 경향 즉 비정전성을 정전성의 틀에 맞추어 이해하고 설명하고 있다. 비정전적인 사건이나 계기에 대한 이야기는 언행에 배태된 마음과 그러한 마음경험을 통해 정의 정전성을 추론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은 우리성을 느끼고 지향하는 관계 속에서 일상의 활동 속에서 경험되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다.

논 의

Bruner(1990)는 일상의 경험을 구성해내어 언술형태로 표현하는 것이 이야기(narrative)이고, 이야기를 통해 자신(self)을 규정하거나 구성한다고 보고 있다(또한 Crossley, 2000; Hollway & Jefferson, 2000; McLeod, 1997). 그러나 한국 문화권에서는 자기(self)를 작인(agent)으로서 물성(entity)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 보는 것이 아니라, 추론에 의한 심적 자기(mind self)를 구성한다는 기존의 연구결과(최상진 등, 1999a; Choi & Kim, 2000, 2002)와 본 연구에서 면접 참여자들의 이야기(생애 이야기와 사건에 대한 이해와 설명방식) 분석을 통해 한국인들이 자기보다는 상대방의 감정과 심정을 중요시하고, 감정입입과 공감함을 통해 상대방의 마음을 자신의 마음으로 경험하고 이해하고 있으며 의미를 구성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응답자들의 이야기를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반구조화된 면접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수행하였다. 먼저 정든 대상과의 관계역사성에 대한 생애 이야기와 일상의 활동에 대해 면접을 실시하였고, 두 번째로 정이 들었다고 느끼거나 생각했던 사건이나 계기에 대해 물어보았으며, 이와 더불어 정이 떨어졌다고 생각하거나 그렇게 생각할 만큼 싸운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 면접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그러한 사건을 어떻게 느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와 같은 질문을 통해 나타나는 이야기는 일반인 심리학적 관점에서

사건에 대한 지각 및 사고 그리고 감정 및 욕구라는 이론적 구성개념을 통해 분석의 대상이 된다. 또한 일반 사람들이 그러한 사건이나 언행에 대해 무엇을 어떻게 경험하고, 그러한 경험을 어떻게 이해하고 설명하는가를 분석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러한 특성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이야기이다.

응답자들의 이야기를 분석해 본 결과, 정든 대상과의 관계 역사는 공통적으로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먼저 초기의 갈등경험이나 비면식의 만남(친구의 경우)과, 전환기로서 갈등의 해소와 친밀감의 정도가 깊어지고, 마지막으로 상대방을 이해하면서 정이 들었다고 생각하는 현재이다. 그리고 정이 들게 되었다고 느끼거나 생각하게 된 사건이나 계기가 있었으며 또한 정이 떨어지거나 떨어질 만큼 싸운 사건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한 사건이나 경험은 문화적 마음의 정전성에 일탈되는 것으로 이야기를 활성화시키고, 그러한 이야기 속에서 마음경험의 내용을 추출해 낼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린 시절 어머니에게 정이 없다고 생각했던 응답자가 어떠한 사건으로 인해 어머니와의 관계가 전환되고 감정이입에 따른 공감 및 이해를 함으로써 정이 들게 되었음을 느꼈다고 했는데, 정이 든 사건이나 계기를 통해 상대방의 심정을 공감하고 아껴주는 마음을 지각하게 되어 정이 들었음을 회고하고 있다. 또한 비록 사소한 다툼이지만 그러한 다툼으로 부정적 감정과 생각을 갖게 되지만 이내 그것이 본마음이 아님을 알게되어 이해하게 되면서 정이 들어감을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응답자들은 그러한 사건과 계기를 통해 경험하는 것은 상대방의 마음이고 동시에 자신의 마음이라고 느끼는 것이다.

따라서, 일반인 심리학적 관점에서 인간의 행위에 대한 일상의 이해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을 말하는 것(Kashima et. al., 1998)으로 이는 문화적 특성을 또한 반영한다. 정든 대상과의 상호작용에 따른 정든 사건이나 계기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정 경험에 있어서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이라는 것이 분석을 통해 나타났다. 또한 일상의 활동(정말로 지극히 일상적인)이 서로의 마음속에 정이라는 문화적 신념 혹은 감정체계로 내재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게다가 부정적 사건에 대한 이야기에서도 일시적

인 부정적 감정(예를 들면, 섭섭하다, 짜증난다, 화난다, 서운하다 등)은 이내 상대방의 본마음에 대한 이해와 공감으로 사라지고 있음을 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한국인들은 가까운 관계에서 상대방의 속마음을 읽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최상진, 2000). 이것은 상대방의 심정을 읽을 수 있을 때 가능하게 되는데 심정을 읽는다는 것은 상대방의 심정을 공감함으로써 가능해진다. 심정공감은 상대방을 생각하기보다는 상대방을 느낄 때 가능해진다. 여기서 느낀다는 것은 머리보다는 가슴으로, 이성보다는 감성으로, 분석적이기보다는 통합적으로, 행위보다는 마음으로 상대를 경험함을 말한다. 즉 한국인들은 상대를 사고하기보다는 상대를 느낀다(김기범, 최상진, 2001; 최상진, 김기범, 1999b; Choi & Kim, 1999, 2001). 따라서 '불쌍하다', '안쓰럽다', '애처롭다' 등 정든 대상을 느낌으로써 상대방의 심정을 이해하게 되며 상대방의 마음을 경험하는 것이다. 서구인들은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할 때 느낀다기 보다는 생각한다 할 수 있다. 이것은 이성적으로 이해하는 것이고 마음 보다는 행동을 중시하며 행동을 통해 마음을 추론하는 것에 불과하다.

본 연구를 시행함에 있어서 몇 가지 제한점이 있었는데, 먼저 본 연구가 비록 pilot 면접을 실시한 후에 진행되었지만 단 1회의 면접시행에 의한 자료만을 분석하였는데, 이를 2회, 3회 시행함으로써 응답자들 스스로 자신들의 경험을 재구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자료 분석시 본 연구자와 연구보조자들간에 전반적인 의견일치가 이루어졌고, 최종 분석에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연구자의 주관적 관점에 따라 분석하였는데, 분석의 타당성과 신뢰성에 대한 좀더 세밀한 작업이 요구된다.

또한 반구조화된 형태로 면접이 진행되었지만, 너무 많은 질문으로 인해 응답자들이 짧은 시간동안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충분한 이야기를 이끌어내지 못한 점도 있다. 더불어, 대인관계 정서에 대한 면접 연구를 시행할 때 정든 대상과 함께 면접을 시행한다면 좀 더 풍부한 자료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서로의 마음에 대한 응답자들간의 이해 및 해석에 대한 자료 또한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조사대상자들의 생애

이야기와 일상적인 활동 및 정이 들거나 떨어지게 되는 비정전적 사건에 대한 이해(understanding)와 설명(explaining)을 통해 정 마음의 일반인 심리적 모델을 설정해 볼 수 있다. 즉 정든 대상과의 일상의 활동을 통한 경험 속에서 '정은 이런 것이다', '정은 이럴 때 드는 것이다', '정은 이렇게 해서 들었다'라는 경험적 지식을 갖게되고 이는 문화적 신념 즉 사회적 표상으로 존재하게 된다. 또한 정든 대상과의 관계에서 갈등이나 상대로 인해 섭섭함을 느꼈던 일을 이해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욕구로 표출되고 있고 이는 행위로 이어지게 된다. 또한 그러한 행위를 함으로써 어떠한 심리적 기능이 수반될 수 있음을 전제하고 있다. 이러한 것이 집단적으로 공유될 때 문화적 현상이 라고 할 수 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경험하고 있는 것을 잘 이해하고 있고, 어떠한 언행이 마땅히 그래야 함을 잘 알고 있으며, 그것이 현실임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참 고 문 헌

- 김기범 · 최상진(2001). 일반인 심리학에서의 마음 : 정 이야기 분석. 한국사회 및 성격심리학회 동계학술대회, pp. 5-24.
- 차재호 · 정지원(1993). 현대 한국 사회에서의 집합주의. 한국심리학회지 : 사회, 7(1), 150-163.
- 최상진(2000). 한국인 심리학. 서울 : 중앙대학교 출판부.
- 최상진 · 김기범 (1999a). 한국인의 self의 특성 : 서구의 self 개념과 대비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 사회 및 성격, 13(2), 279-295.
- 최상진 · 김기범 (1999b). 한국인의 심정심리 : 심정의 성격, 발생과정, 교류양식 및 형태. 한국심리학회지 : 일반, 18(1), 1-16.
- 최상진 · 김지영 · 김기범(2000). 정(미운정 고운정)의 심리적 구조, 행위 및 기능간의 구조적 관계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 사회 및 성격, 14(1), 203-222.
- 최상진 · 유승엽(1995). 정(情)의 심리적 구조에 대한 경험적 분석. 국제여성연구소 연구논총(중앙대 편), 5(1), 107-132.
- 최상진 · 유승엽(1996). 심정심리학의 개념적 틀 탐색. 한국심리학회 연차대회 발표논문집, pp. 377-388.

- 최상진 · 최수향(1990). 정의 심리적 구조. 한국심리학회 연차대회 발표논문집, pp. 1-9.
- 최상진 · 한규석(1998). 교류행위를 통해 본 한국인의 사회심리. 국제한국학회 (편), 한국문화와 한국인 (pp. 161-193). 서울 : 사계절.
- 최상진 · 한규석 · 김기범(2000). 문화, 마음, 인지 구성에서의 삼위일체적 역동. 한국사회 및 성격심리학회 동계학술발표회, pp. 13-19.
- 최상진 · 한규석 · 김기범(2001) 문화사회심리학에서의 마음.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대회, pp. 241-249.
- 한규석(1991). 사회심리학 이론의 문화특수성: 한국인의 사회심리학 연구를 위한 고찰.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6(1), 132-155.
- Bartsch, K., & Wellman, H. M. (1995). *Children talk about the mind*. NY: Oxford University Press.
- Bruner, J. (1990). *Acts of meaning*.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Choi, S. C., & Choi, S-H. (1994). We-ness: A Korean discourse of collectivism. In G. Yoon, & S. C. Choi (Eds.), *Psychology of the Korean people* (pp. 57-84). Seoul: Dong-A Publishing & Printing Co., Ltd.
- Choi, S. C., & Choi, S. H. (2001). Cheong: The socio-emotional grammar of Koreans. *International Journal of Group Tensions*, 30(1), 69-80.
- Choi, S. C., & Kim, K. (1999). Shimcheong: The key concept for understanding Koreans' mind. *Paper presented at the 3rd Conference of the Asian Association of Social Psychology*, Taipei, August 4-7, Taiwan.
- Choi, S. C., & Kim, K. (2000). A conceptual exploration of the Korean self. *Paper presented at the XVth Congress of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Cross-Cultural Psychology*, Pultusk, July 16-21, Poland.
- Choi, S. C., & Kim, K. (2001). Shimcheong : Interpersonal mind activated in Cheong relationship. *Paper presented at the Asian Association of Social Psychology*, Melbourne, July 10-13, Australia.
- Choi, S. C., & Kim, K. (in press). A conceptual exploration of the Korean self. To appear in *Progress in Asian Social Psychology* (Vol. 3).
- Churchland, P. M. (1991). Folk psychology and the explanation of human behavior. In J. D. Greenwood (Ed.), *The future of folk psychology : Intentionality and cognitive science*(pp. 51-69). Cambridge,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ooley, C. (1902). *Human nature and the social order*. NY: Scribner.
- Crossley, M. L. (2000). *Introducing narrative psychology : Self trauma and the construction of meaning*. Buckingham: Open University Press.
- Fontana, A., & Frey, J. H. (1994). Interviewing : The art of science. In N. K. Denzin, & Y. S. Lincoln (Eds.), *Handbook of qualitative research*(pp. 362-376). Thousand Oaks: Sage Publications.
- Gergen, K. J., & Thatchenkery, T. J. (1996). Developing dialogue for discerning differences. *Journal of Applied Behavioral Science*, 32(4), 428-433.
- Glassman, M.. (1996). Understanding Vygotsky's motive and goal : An exploration of the work of A. N. Leontiev. *Human Development*, 39, 309-327.
- Goldman, A. I. (1993). The psychology of folk psychology. *Behavioral and Brain Sciences*, 16, 15-28.
- Greenwood, J. D. (1991). Introduction : Folk psychology and scientific psychology. In J. D. Greenwood (Ed.), *The future of folk psychology : Intentionality and cognitive science* (pp. 1-21). Cambridge,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Greenwood, J. D. (1999). From Volkerpsychologie to cultural psychology: The once and future discipline? *Philosophical Psychology*, 12(4), 503-514.
- Harre, R., & Gillett, G. (1994). *The discursive mind*. Thousand Oaks: Sage Publications.
- Haselager, W. F. G. (1997). *Cognitive science and folk psychology: The right fame of mind*. London : Sage.

- Heider, F. (1958). *The psychology of interpersonal relations*. NY: Wiley.
- Hofstede, G. (1991). *Culture and organizations : software of the mind*. London: McGraw Hills.
- Hollway, W., & Jefferson, T. (2000). *Doing qualitative research differently: Free association, narrative, and the interview method*. London: Sage Publications.
- Hones, D. F. (1998). Known in part: The transformational power of narrative inquiry. *Qualitative Inquiry*, 4(2), 225-248.
- Hong, Y-Y., Morris, M. W., Chill, C-Y., Maltinez, V. B. (2000). Multicultural minds : A dynamic constructivist approach to culture and cognition. *American Psychologist*, 55(7), 709-720.
- Kashima, Y., McKintyre, A., & Clifford, P. (1998). The category of the mind : Folk psychology of belief, desire, and intention. *Asi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 289-313.
- Kim, J. (1996). *Philosophy of mind*. Boulder, CO: Westview Press.
- Kvale, S. (1996). *Interviews : An introduction to qualitative research interviewing*. Thousand Oaks : Sage Publications.
- Lillard, A. (1998). Ethnopsychologies : Cultural variations in theories of mind. *Psychological Bulletin*, 123(1), 3-32.
- McLeod, J. (1997). *Narrative and psychotherapy*. London: Sage Publications.
- Miller, J. G. (1999). Cultural psychology: Implications for basic psychological theory. *Psychological Science*, 10(2), 85-91.
- Norman, J. (2000). Constructive narrative in arresting the impact of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Clinical Social Work Journal*, 28(3), 303-319.
- Potter, W. J., & Donnerstein, D. L. (1999). Rethinking validity and reliability in content analysis. *Journal of Applied Communication Research*, 27, 258-284.
- Ratner, C. (1997). *Cultural psychology and qualitative methodology : Theoretical and empirical considerations*. NY: Plenum.
- Rice, P. L., & Ezzy, D. (1999).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Oxford University Press.
- Shotter, J. (1995). In conversation : Joint action, shared intentionality, and the ethics of conversation. *Theory and Psychology*, 5, 49-73.
- Smith, B. (1999). The abyss : Exploring depression through a narrative of the self. *Qualitative Inquiry*, 5(2), 264-279.
- Stich, S. P. (1996). *Deconstructing the mind*. NY: Oxford University Press.
- Triandis, H. C. (1995).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Boulder: Westview Press.
- Vygotsky, L. S. (1978). *Mind in society : The development of higher psychological processes*.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Wellman, H. M. (1990). *The child's theory of mind*. Cambridge, MA: The MIT Press.
- Wertsch, J. V. (1998). *Mind as action*. NY: Oxford University Press.

<부 록>

표 1. 일상의 활동 분석결과

종 류	내 용	주 제
이야기(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엄마가 몸 아프다는 얘기, 죽은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여) ·학교에서 있었던 이야기(여) ·동아리, 동호회 얘기(여) ·본인 얘기, 상대방 얘기(여) ·직장에서의 스트레스(남) ·잔소리 듣고 변명하기(남) 	주변 잡기 이야기
일상적인 활동(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같이 밥먹고 수업 같이 듣고(여) ·당구 치고 술 마시고(남) ·말 장난, 농구하고, 술마시고(남) ·특별한 것은 없다(남) ·쇼핑(여) ·청소(여) 	활동 공유
부모 앞에서 재롱(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양떨기(남) ·아버지의 술 상대(남) 	상대 배려

주) () 안의 빈도는 중복된 응답의 경우 개개의 응답범주에 포함시켰음.

표 2. 친구관계 : 주요 사건(Key Events) 분석

사례	정이 든 계기나 사건	주제	부정적 사건	주제
1	계기가 있어선지 어쩐지 모르겠구, 처음 1년 동안 같이 다닐 친구가 없어서, 어느 순간, 내가 애랑 정이 상당히 많이 들었구나.. 좀 오래되서(기억이 잘 안나요)	친밀감 자각	나는 한 번 활동을 하면 그 모임의 운영자가 될 정도로 열심히 하는 타입인데 반해서 그 애는 여기저기(모임들에) 발만 들여놓는 타입인데, 내가 한 번 같이 지내게 되고, 내가 한 번 같이 가자고 데려가면, 사람들이 그 애보다는 나 위주로 보게 되는데, 최근 새로운 모임에 둘 다 같이 발을 들여놓게 되었는데, 그 애가 그 모임에서 매우 열심히 활동을 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그동안 나에 대한 서운함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 나를 밟고라도 올라가고 싶어하는 것 같아서 섭섭했었다. 잘나가는 그 애를 띄워주고 싶었는데... 정 떨어진다고 생각했었어요.	사소한 배신감
2	그냥 어려운 일 있을 때 얘기하고 집안에 어려운 일 있을 때 술이라도 한잔하며...	동고동락	그 애 집에 갔는데, 녀석이 자고 있었는데, 나는 할 일이 없어서 컴퓨터를 켜는데, 녀석이 깨더니 시끄럽다고 가라고 해서 서운했다.	서운함
3	대학에 와보니 학교도 틀리고 전공도 다른데 지금까지 겪어온 사람들 중에서 나를 가장 잘 알아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동고동락	그 친구랑 싸운 적은 없는데, 담임 선생님이 그 친구랑 나를 비교했을 때...	비교
4	여행을 같이 가서 내가 하기 싫은 것을 친구가 맡아서 해주고 친구가 힘들어할 때 내가 도와주고 싶어지는 것을 볼 때, 뭔가 바라지 않고 줄 수 있다는 것을 볼 때.	동고동락	한 번도 없다. 싸운 적도 서운한 적도 없다.	
5	친구의 여자친구에게서 내 친구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듣고 일이 손에 잡히질 않고, 내가 친구 병수발을 위해 병원에서 하루 밤을 지내면서.	동고동락	성에 대해서 이야기 했을 때, 나는 크리스찬이라서 혼전순결을 지켜야 한다고 했는데, 다른 친구들과 그 친구는 사랑한다면 혼전순결은 중요하지 않다고 하면서 의견다툼이 있었는데, 술자리였는데, 그 와중에 기분이 상했다. 강압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왜 그 친구를 죄인 취급하는냐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오해 및 갈등

표 3. 친구관계 : 이해(Personal Understanding) 분석

사례	정이 든 계기나 사건에 대한 이해	주제	부정적 사건에 대한 이해	주제
1	뿌듯했다. 다닐 사람이 없어서 그냥 다니는 것은 아니구나.	만족감 자각	처음엔 많이 섭섭했다. 같이 모임을 시작하는 거니까, 그 애가 남자친구도 없고 그러니까, 나는 잘 보일 사람도 없고 하니까 그 애가 괜찮아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좀 회생을 하더라도 받쳐주고 싶었는데 그 애가 너무 해버리니까... 그게 잘 안되는 거 같아요... 그냥 제가 나갈 수 있는(갑자기 모이자면) 안나간다. 예전 같으면, 내가 잘보일 일이 있어도 그 애가 나오라고 권유를 했었는데, 그 애는 더 튀고 싶어하니까 내가 나올까봐 걱정하는 것 같아 보인다. 이 모임이 일시적인 모임인데 친해져서 앞으로도 계속 모일 것 같은데 이 모임이 끝나면 나가지 않을 계획이다. 그 친구랑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친구마음 이해
2	고마운 만큼 미안하다.	이해	이 자식이 왜 그러지... 피곤해서 그렇겠지...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다. 잘지낸다.	이해
3	같이 학교 다니면 좋겠다(아쉬움).	아쉬움	우울한데, 좋아하는게 서로 다른데 선생님이 그 친구가 잘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 때문에 우울했다.	실망
4	(돈) 받았을 때는 고마웠고, (돈) 줄 때도 기쁜 마음으로 주었다.	고마움	지금은 자주 만나실 못한다. 많으면 한 해에 5-6번, 보통 2-3번, 그래도 서로 이해하고 서로에 대한 관심이 멀어졌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	이해 공감
5	내가 그 친구를 좋아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	호감 자각	기분이 나빴다. 내 의도를 잘 이해해주지 못하는 것도 같았다... 그러나 금방 풀려졌다. 술자리에 나와서 게임방에서 스타크래프트 하면서 같은 팀이 되어서 하다보니 바로 화해가 되었다.	신뢰 공감

Folk Psychological Approach to Maum(Mind) : An Analysis of Cheong(Interpersonal Affection) Narratives

Kibum Kim and Sang-Chin Choi

Department of Psychology, Chung-Ang University

The present study was to explore the inferential process of Cheong(interpersonal affection) Maum(Mind) which is developed in close relationship among Koreans. The content analysis of narratives which were collected from interview. A total of 14 university students(male 6, female 8) participated in this interview. The question-items were as followings; 1) Which person is the most Cheong-dun one around you?, 2) Would you tell me your historical stories in relation to Cheong-dun person?, 3) Would you tell me any critical events which you realized you had Cheong with him/her?, 4) How do you explain that events?. The results revealed that the most important thing in Cheong-dun relationships was to infer each other's caring Maum(Mind) to one another. This inference was based on each others caring behavior and sharing everyday activities, and through Shimcheong(felt mind) communication or Shimcheong empathy. Therefore, the authors would like to assert that Maun1 as a agent is the most important component of social interaction in Cheong relationship among Korean people.

Keywords: folk psychology, Cheong(interpersonal emotion), Maum(mind), Narrative

원고 접수: 2002년 6월 25일

심사 통과: 2002년 8월 3일